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락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스승님과의 일치를

지난 7월 24일 교구 주교님과 신부님들께서 두봉 주교님 서품기념일 행사를 같이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늘 7월 하순이면 두봉 주교님의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에 오셔서 10여년을 대전 대흥동 본당에서 보좌신부로 생활하시다가 주교서품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하나로 주교님과 함께 사목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저에게 많은 위로와 용기를 받습니다. 도시의 큰 본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며 생활하고 싶은 유혹을 극복할 수 있고, 누군가로부터 시골사람이라고 무시를 당하여도 여유롭게 미소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 강남의 본당이나 외국의 주교좌 본당에서도 당당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교님은 저의 훌륭한 스승이십니다.

이런 제자와 스승의 관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자인 알베르 까뮈가 스승인 장 그리니에의 '섬'이라는 소설에 훌륭한 서문을 쓰게 됩니다. "알제에서 내가 이 책을 처음으로 읽었을 때 나는 스무 살이었다. 내가 이 책에서 받은 충격, 이 책이 내게, 그리고 나의 많은 친구들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서 오직 지드의 〈지상의 양식〉이 한 세대에 끼친 충격 이외는 비길 만한 것이 없을 것이다. 오늘 처음으로 이 '섬'을 열어보게 되는 저 낯모르는 젊은

사람을 뜨거운 마음으로 부러워한다.”라고 서문을 마무리합니다. 정말 스승에 대한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논어에서는 공자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안회가 스승에 대한 실망과 억울함에 조용히 집으로 가려할 때 공자는 그때의 상황에 비추어 ‘千年古樹莫存身(천년고수막존말), 殺人不明勿動手(살인불명물동수) : 천년 묵은 나무에서 몸을 숨기지 마라, 명확하지 않고서는 함부로 살인하지마라.’라는 글을 선물로 줍니다. 이에 안회는 어쩔 수 없이 그 글귀를 지니고 집으로 향하던 중에 소나기를 만나서 고목나무 밑에서 비를 피하다가 공자의 글귀를 생각하고 나무를 벗어났을 때 번개가 나무를 내리쳤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고 늦은 시각에 집에 돌아와 보니 침실에 두 사람이 자고 있었습니다. 이에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자신의 칼로 모두를 죽이려하다가 스승의 글이 생각나서 불을 켜고 확인해보니 자신의 여동생이 부인과 함께 자고 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을 깨우치고 다시금 공자의 가르침을 철저히 실천하는 최고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하느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주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가 타볼산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구약성경에서 산의 의미는 거룩한 장소로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초월적, 영적 경험의 장소(창세 22, 1-14)이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군중을 피해 홀로 계시는 곳이며, 기도를 하거나 사람들을 가르치신 장소입니다(마태 4,8-9). 고대 근동문화에서 산은 신이 사는 곳이며, 신의 영역으로 인식되어지는 곳입니다. 이러한 산에서 당신의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셨기에 스스로가 하느님과 동일한 존재임을 드러내십니다. 아울러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 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마태 17,2)는 의미는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의 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그 얼굴의 살갗이 빛나고 있었다’(탈출 34, 30). ‘성령을 받아 주님과 일치를 이룬 스테파노의 얼굴이 한낮의 태양처럼 빛났다.’(묵시 1, 16)라고 해석하여 하느님을 증거하고 함께 하는 사람의 모습(사도 6, 15)이라고 해석합니다.

교우 여러분, 멋진 스승님의 가르침인 계명(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을 통하여 하루하루의 갈등을 극복해 나갑시다. 주변사람들의 가치관과 기준에 의하여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과의 일치를 이루는 영광의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도 열정적인 사랑과 깊은 용서를 통하여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합시다. 두봉 주교님처럼 환한 웃음으로 한 주간을 시작해봅니다. “하하하” 아멘.

사벌퇴강 본당 박재식 토마스 신부

전 례

입당 전 안내

교형,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새하얀 빛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참인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환히 보여주십니다. 약한 인간들에게 두려움을 주고자 하심이 아니라 당신의 십자가 수난과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영광을 미리 체험케 하심이니, 이보다 더 큰 사랑과 배려가 어디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행실 하나라도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봉헌이 되도록 마음을 모아 이 전례에 참여합시다.

입당성가 : 72번 '다볼 산의 예수'

본기도

† 하느님, 외아드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때에, 율법과 예언서의 증언으로 신앙의 신비를 밝혀 주시고, 저희를 자녀로 삼으실 것을 미리 알려 주셨으니, 하느님의 종인 저희가,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제1독서 : 다니엘 예언서 7장 9절-10절. 13절-14절

안 내 : 그분의 옷은 눈처럼 희었고,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묵 상 : 하느님께서는 환시를 통하여 장차 다가올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주님의 끝없는 영광 속에 살아가는 새 하늘 새 땅을 약속하십니다.

화 답 송 : ◎ 주님은 임금이시다.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제2독서 : 베드로 2서 1장 16절-19절

안 내 : 그분은 정녕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영예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묵 상 : 주님께서는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영광을 받으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온 누리에 전하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 17장 1절-9절

강　　론 : '스승님과의 일치를'(1-2쪽)
예물준비성가 : 211번 '주여 나의 몸과 맘'
영성체성가 : 172번 '그리스도의 영혼'
영성체 후 묵상

사랑하는 이에게는
내 생각이나 내가 가진 것들, 내가 꿈꾸는 미래에 관하여
말하거나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나누며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고 더 이해하게 됩니다.
<침묵>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당신의 모습을 환하게 빛내시며 장차 당신이 겪게 될
고난과 죽음을 넘어선 영광의 순간을 보여주십니다.
<침묵>
주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은
두려움과 놀라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영광 속에
우리 모두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보이는 이 세상 안에 살면서도
보이지 않는 세상인 하느님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도록
사랑과 영광 속에서 기쁨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침묵>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당신의 변모하시는 모습에서 발견하는 지혜를 간직합시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4,420,000*원** 입니다.
성금 보내주실 분은 지로 7519989나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 림

■ 초등부 성소자 캠프

· 일시 : 8월 8일(화) 14:00 - 9일(수) 14:00
· 장소 : 한성연수원
· 대상 : 성소에 관심있는 남자 초등부(3-6학년)
· 준비물 : 미사준비, 세면도구, 편한 복장, 운동화, 샌들, 갈아입을 옷 등
· 참가비 : 1인 30,000원

■ 제3차 가나혼인강좌(혼인 전 교리교육)

· 일시 : 8월 19일(토) 13:00 - 18:00
· 장소 : 교구청
· 참가비 : 1인 1만원(2인 2만원)
· 대상 : 혼인을 준비 중인 남녀 (함께 참석해야 함)
· 신청 : 8월 17일(목)까지 사목국으로(858-3114~5)

▣ 여성 제39차 꾸르실료

· 일시 : 8월 10일(목) 16:00 - 13일(주일) 15:00
· 장소 : 농은수련원
· 참가비 : 1인당 120,000원
· 신청자격 : 영세 후 3년이 경과하였거나 견진성사를 받은 분

▣ 1일영성피정

· 일시 : 8월 12일(토) 10:00 - 17:00
· 장소 : 점촌동성당
· 강사 : 문봉한 야고보 신부(대구교구)
· 회비 : 6천원(중식비 포함)
· 문의 : 성령쇄신봉사회 010-8447-0111

▣ 치유세미나

· 일시 : 8월 18일(금) 15:00 - 20일(주일) 16:00
· 장소 : 농은수련원
· 강사 : 이보경 데레사 외
· 회비 : 10만원
· 신청 : 8월 10일까지 성령쇄신봉사회 010-8447-0111

▣ 안동교구 갈전성당 성전건립기금 마련 판매사업

· 건강 쑥미숫가루(600g, 1만원, 1kg 1만6천원)
낙동강 청정지역에서 직접 채취한 쑥
담당자 : 정 카타리나 010-8573-5979
· 영양 토마스 고춧가루(주문판매)
전국 제일 고추생산지 영양 고추 100% 엄선 가공
담당자 : 오 수산나 010-3813-4405

▣ 룻과 함께하는 침묵피정

· 일시 : 8월 11일(금) - 13일(주일)
· 장소 : 한국외방선교수녀회 부산 본원
· 대상 : 40세 미만 미혼여성
· 문의 : 010-9319-1690 루카수녀

▣ 소울스테이 여름 가족 캠프

· 일시 : 8월 11일(금) - 13일(주일)
· 장소 : 평화계곡 피정의집(소울스테이)
· 회비 : 1인당 9만원
· 문의 : 010-5332-7587

▣ 예수마음기도영성수련

· 3박4일 피정: 8.24(목)-27(일), 9.14(목)-17(일)
8박9일 피정: 8.9(수)-17(목), 9.19(화)-27(수)
· 장소: 문산 예수마음피정의집
· 신청: 010-4906-5722, 031)953-6932

▣ 제1회 가톨릭 장애인 생활 수기 공모전 (신앙과 장애, 그리고 "나"의 이야기)

· 주제 : 한국가톨릭장애인사목협의회 활동과 관련한 희망이야기, 신앙생활 가운데 장애와 함께하는 체험이야기, 장애와 함께하는 가족 또는 이웃과의 아름답고 소중한 사랑 이야기
· 자격 : 가톨릭 신앙의 장애인(개인, 단체) 및 가족, 장애인 복지 관련 활동가(자원봉사자, 종사자 등)
· 분야 : 수필, 시, 그림일기 등
· 응모방법 : 한가장 카페 (http://cafe.daum.net/hancajang/) 에서 양식 다운, 작성 후 이메일 신청 hangajang1@hanmail.net
· 응모기간 : 10월 21일(토) 18:00까지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이 2016년 4월 8일(금) 로마 시각 낮 12시(한국 시각 저녁 7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문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소집했던 가정에 관한 두 차례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 곧 2014년 제3차 임시총회와 2015년 제14차 정기총회 결과를 소개하고 발전시킨 후속 권고로서, 서론과 9개 장 32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소사목지에서는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제5장

사랑의 결실

167. 대가족은 교회의 기쁨입니다. 그러한 가정은 사랑의 풍성함을 나타냅니다. 또한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은 책임 있는 부모가 된다는 것은 "무제한적으로 출산하지 않는다거나 아이를 양육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인구학적 현실, 자신들의 상황, 합당한 욕구를 고려하여 부부의 권한으로 그들의 침범할 수 없는 자유를 지혜롭고 책임 있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과 임신

168. 임신은 힘든 기간이지만 경이로운 때이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하느님께 협력하여 새 생명의 기적을 낳습니다. 모성은 "여성의 몸의 특별한 잠재력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 몸이 그 창조적 특성으로 인간 존재를 수태하고 출산하여 새로운 인간의 탄생에 기여합니다." 여성은 "아이를 낳을 때마다 창조의 신비"에 참여합니다. 시편 저자는 "정녕 당신께서는 제 속을 만드시고 제 어머니 배 속에서 저를 엮으셨습니다"(시편 139[138],13)라고 노래합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자란 모든 아이는 하느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의 계획입니다. "모태에서 너를 빚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 태중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예레 1,5). 모든 아이는 언제나 하느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수태되는 순간에 창조주의 영원한 꿈이 이루어집니다. 수태 순간부터 태아가 얼마나 위대한 가치를 지닌 존재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와 같은 사랑의 눈길로 태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겉모습 이상의 것을 보십니다.

169. 임신한 여성은 하느님의 계획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아이에 대하여 꿈꾸게 됩니다. "아홉 달 동안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신들의 아이에 대하여 꿈꾸게 됩니다.

…… 꿈이 없는 가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가정이 꿈꾸는 능력을 상실하면, 아이들이 성장하지 않고, 사랑도 자라지 않으며, 생명이 시들어 소멸하게 됩니다.” 혼인한 그리스도인 부부의 이러한 꿈에는 반드시 세례가 담겨 있습니다. 부모는 기도로 세례 준비를 하면서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께 아이를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170. 오늘날 과학의 발전으로 아이의 머리카락 색깔이나 그 아이가 앞으로 걸릴 가능성이 있는 질병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 아이의 신체적 특성이 이미 배아 단계에서 유전 정보에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느님 아버지만이 그 아이에 대해 완전히 알고 계십니다. 하느님만이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그 아이가 누구인지를, 곧 그 아이의 가장 심오한 정체성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임신한 어머니는 하느님께 지혜를 청하여 자신의 아이를 온전히 알고, 있는 그대로 그 아이를 받아들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어떤 부모들은 적절한 시기가 아닐 때에 아이가 생겼다고 여깁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굳건히 해 주시어 그 아이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청하여야 합니다. 아이가 자신이 환대받는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는 개인적 욕구의 장식품이나 해결책이 아닙니다. 아이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인간 존재이며 결코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새 생명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 마음에 드는 특성들을 지니고 있는지, 또는 여러분 계획이나 기대에 적합한지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선물입니다. 모든 아이는 저마다 특별하며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 우리는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예쁘게 생기거나 자신을 닮거나 자신처럼 생각을 하거나 자신의 꿈들을 실현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의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아이일 뿐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우리의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 주시는 도구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아이의 탄생을 기다리시고 그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시며 아낌없이 환대하십니다.

171. 저는 모든 임신한 모든 여성에게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을 지켜서 그 어떠한 것도 모성의 내면적 기쁨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아이들은 마땅히 여러분의 기쁨입니다. 두려움, 걱정, 다른 사람들의 말 또는 문제들 때문에 하느님의 도구가 되어, 새 생명을 세상에 내어 놓는 여러분의 기쁨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아이의 탄생을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마리아님처럼 찬미 노래를 부르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루카 1,46-48). 여러분이 많이 힘들겠지만 이러한 순수한 기쁨을 경험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의 기쁨을 지킬 수 있도록 청하여 그 기쁨을 여러분의 아이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다음에 계속 -

살림터 이야기

반가운 손님

정규석 프란치스코
(안동가톨릭문인회)

재주가 없어 내가 잘하는 것은 별로 없다. 그중에서도 꽃을 가꾸고 관리하는 일에는 더더욱 젬병이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축하할일로 화분이나 꽃을 받으면 관리할 일이 먼저 걱정될 정도였다. 내게 온 꽃이나 식물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다. 주변에 화초를 취미삼아 기르는 사람들을 보면 대단한 능력자처럼 보였다.

어느 글에서 좋아하는 꽃이 나팔꽃이라고 했더니 몇 달 전쯤 지인이 내게 화분 하나를 선물로 줬다. 작은 화분에다 나팔꽃 씨를 심었다면서 잘 가꾸면 7~8월쯤 꽃이 필거라고 했다. 고맙다며 받기는 했지만 걱정거리 하나를 안겨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았다. 제대로 키우지 못할게 뻔한 데 가끔씩 만나는 지인에게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걱정이 되었다. 그래도 시도는 한번 해봐야할 것 같았다.

나팔꽃은 물만 주는데도 잘 자랐다. 5일 만에 싹이 나오더니 1주일이 지나자 4㎝크기로 자라기 시작했다. 3개의 싹은 6개까지 늘어났지만 가운데와 좌우로 세 싹만 남기고 미련없이 뽑아버렸다. 화분이 작아서 그 이상은 어려울 것 같아서다. 20일이 지나자 6.5㎝로 자란 나팔꽃은 잎 색깔이 진해지며 튼튼해졌다. 그리고 한 달이 더 지나 지지대를 세워주자 기다렸다는 듯이 나사방향으로 감기를 시작했다. 고개를 들고 좌우를 살피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 지지대를 향해 몸을 기울여 능숙하게 감아올렸다. 그 신중함과 날렵함이 예사로워 보이지 않았다. 지금 한 줄기는 지지대를 지나 천정에 달아놓은 줄을 타고 오르기 시작했다. 영양제 덕분인지 2m가까이 자랐다.

나팔꽃에는 적자생존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 같은 싹에서 나온 잎도 햇빛을 제대로 못 받으면 예외 없이 말라 죽는다. 그뿐만이 아니다. 줄을 타고 오르며 위쪽으로의 성장을 시작하자 밑에 있는 잎이 마르기 시작한다. 새로운 잎을 위해 먼저 나온 잎이 희생되는 것이다. 강한 생명력을 위해 늘 자신들이 성장할 만큼의 적당한 몸을 유지한다. 자리를 잡기까지는 5~6잎만 가지고 있다. 나팔꽃은 아주 영리해 보인다.

지금 3줄기 중 가장 왕성한 것은 가운데 줄기이다. 이미 지지대를 지나 줄을 타고 꽤 높이 오르고 있는데도 좌우의 두 줄기는 이제 줄을 타기 시작했다. 성장의 차이가 안타깝지만 차례대로 꽃을 피워서 오랫동안 꽃을 보는 행운으로 연결되었으면 한다.

두 달이 지나면서 나도 잘하면 식물을 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저 물이나 주고 지지대를 세워준 것 밖에 없지만 기대이상으로 잘 자라는 모습에 자신감이 생긴 것이다. 화초들은 정직하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저 해주는 만큼의 결과를 가져다준다. 더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면 보답하듯이 잘 자란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식물의 변화가 여간 신비로운 게 아니다. 적은 노력으로 아름답고 싱그러운 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매력적인 일이다. 이런 즐거움 때문에 사람들이 화초를 가꾸는가 싶다. 직접 해보니 나팔꽃을 키우는데 필요한 것은 특별한 기술이나 시간이 아니었다. 관심이었다. 그동안 재주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활짝 핀 나팔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침마다 베란다의 창문을 타고 화려하게 피어날 나팔꽃을 상상하면 가슴이 뿌듯해진다. 만개한 나팔꽃은 무더운 올 여름에 찾아올 반가운 손님이다. 그가 기다려진다.